

SBS 생방송투데이 (574회) 2011년 8월 25일 방송분
수타는 다르다! 북경오리를 이용한 3가지 요리!

뿔난 명인! 제자 정종철을 위해 중국 최고의 보양식 북경오리로 보양식탁을 차려내다!



수타 도전, 남은 시간은 앞으로 한 달! 애타는 정종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한된 석 달의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그동안 설거지에 면 삶기, 수타 반죽 만들기 등 각 단계들을 무리 없이 넘겨온 정종철이지만, 정작 면 뽑기 단계에선 발전 없이 헤매고 있는데.. 이에 스승 손덕준 명인, 더 이상의 가르침은 없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고!! 오직 정종철의 노력에 성공여부가 달렸다면 냉정하게 돌아서는데. 그렇다고 자신의 제자를 버려둘 수는 없는 명인,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낸다! 점점 지켜가는 제자를 안쓰럽게 지켜보던 명인, 숨겨뒀던 애뜻한 마음을 요리로 표현한다. 해삼에 전복, 삭스핀 등 귀하다는 재료들이 모두 출동하는 중국 최고의 보양식, 불도장에~ 등소평의 장수비결이라는 북경오리를 이용한 세 가지 특별요리를 곁들여 제자를 위한 보양식탁을 똑딱 차려내는데~!!



【개그맨 정종철】 오리가 굉장히 군기가 바짝 들어서 각을 정확하고 잡고 있네요!

【주방사람】 똑같네

【개그맨 정종철】 똑같죠

【개그맨 정종철】 아주 군기가 바짝 든 전직 군인이었던 오리였습니다!

【개그맨 정종철】 요런 군기가 바짝 든 오리를 드셔야 군기! 기가 들어가는거죠.



【박광범 아나운서】 오리 하면 북경이죠! 북경하면 오리를 뺄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고 북경

○
TV속 오리기행

중국 최고의 보양식 북경오리

을 대표하는 상징이 된 북경오리입니다! 바짝 튀기죠!

【수타명인】 제일 중요한 건 오리에서 기름을 최대한 제거하는 거예요. 오리를 잡아서 소금을 약간 발라줘요.

【수타명인】 그리고 나서 햇빛이 없는 곳에 말려요. 껍질을 말리면서도 기름이 빠져요.



【수타명인】 그러면서 빨대를 껍질과 살 사이에 찔러넣어서 붙여줘요.

【수타명인】 그러면 껍질하고 기름하고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는 과정에서 기름이 많이 빠져요.

【박광범 아나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오감만족 중화요리입니다.



카오야라고 불리는 이 북경오리는요. 세가지 색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수타명인】 오리 한 마

리로 세가지 맛을 내는 거예요

【박광범 아나운서】 그 첫 번째는! 노릇한 갈색! 이 겹질 요리입니다.

【윤현진 아나운서】 오! 겹질이 제일 맛있죠!

【박광범 아나운서】 네! 말할 필요없죠. 바삭하면서 쫄깃한 식감은 보너스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팔순 노인의 피부를 칠순노인의 동안의 피부로 보이게 할 만큼 피부 미용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박광범 아나운서】 오리껍질은 바오빙이라고 불리는 중국식 밀전병에 화채나 오이채를 곁들여 함께 싸먹으면 되는데 보는것만으로도 입안에 폭포가 정말.. 필 것 같습니다.



【박광범 아나운서】 두 번째 찬란한 무지개색입니다. 뼈사이 야물게 달라붙은 살코기를 발라내구요. 좌우로 다듬어 모양을 낸 후에



【박광범 아나운서】 오색 빛깔 채소모임에 반갑다 친구야 인사 나누면서 무지개색 오리 순살 볶



음으로 새생명을 얻습니다.

【박광범 아나운서】 여기에 매콤한 사천식 양념을 더하면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오리고기를 아주 새콤하게 맛을 내는 요리로 만들어 줍니다.



【박광범 아나운서】 자! 마지막은 하얀색입니다! 껍질에 살 발라먹어서 남은건 뼈밖에 없겠지만



【박광범 아나운서】 시원한 국물맛 내주는 배추와 함께 온천욕 제대로 하고 나면은 사돈이 산 열마지 땅이 배아플 턱이 없는 오리의 모든 영양가를 꼭꼭 눌러담은 오리뼈탕이 됩니다!



【윤현진 아나운서】 볶음에 탕까지!



【박광범 아나운서】 재료 활용을 확실히 하는 중국 요리예요! 세 가지맛 세 가지 요리! 버릴 것 하나



없는 북경오리입니다!

【박광범 아나운서】 북경오리를 처음 접한다는 정종철 씨에게 명인이 직접 한 쌈 싸서 선물을 합니다.

【수타명인】 양파를 넣고 오이를 넣고..

【박광범 아나운서】 명인에게서 진짜 수타면을 보고 싶긴 하시나봐요. 정성을 들이십니다.

【개그맨 정종철】 야! 오리 맛이 올라온다!



【개그맨 정종철】 정말 놀랐습니다.

